

# 아함경



## “믿음에 대하여...”

〈출전: 법구비유경 제1:독신품:4-580상〉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믿음에 대하여 -1

개구리들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은 정성으로 기우제를 지냈고 모두들 비가 올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을 동굴에 모여 기우제를 지냅니다.

잠시후...

비가 내린다!

비다.



개구리들은 기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중 누구 하나 우산을 가져온 이는 없었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우산을 가져올 걸~.



믿음에 대하여 -2

부처님께서 사위성 동남쪽 강가에서 설법하실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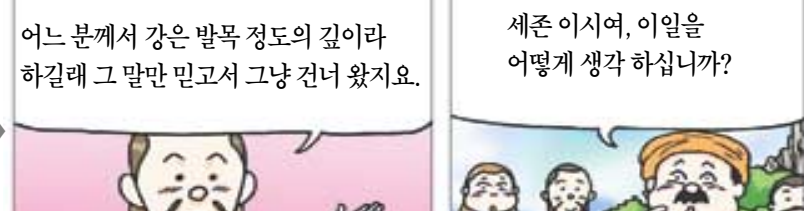
오~ 놀라운 일이다.

당신은 어떻게 물위를 걸을 수 있소?



어느 분께서 강은 발목 정도의 깊이이라 하길래 그 말만 믿고서 그냥 건너 왔지요.

세존 이시여, 이일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곳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구나...

우왓~ 저기 좀봐. 누가 강위를 걸어오고있어.

확실한 믿음과 정성만 있다면 생사(生死)의 길은 호수도 건널 수 있거늘...

몇 리의 강을 건너는 것은 그리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 “선·악의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의 뉴스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비자금'이라고 할 정도로 온통 비자금 이야기들이다. 어느 정당이 어느 대기업한테서 얼마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한창이더니 드디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소식까지 들린다. 이 전직 대통령을 말하자면 선재는 참 할 말이 많다. 일전에 법원에서 금융권에 있는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해서 선재를 웃겼다. 결국 법원의 집행에 따라 집안의 물건들을 경매 처분하느라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는 어이없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울지 못한 물건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미십계법>의 말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선재는 생각한다. 그러나 “시주한 물건이나 대종의 것, 나라의 것, 개인 소유물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지 말라. 세금을 속이거나 배삯을 안 내는 것은 모두 훔치는 행위이다”와 같은 경전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도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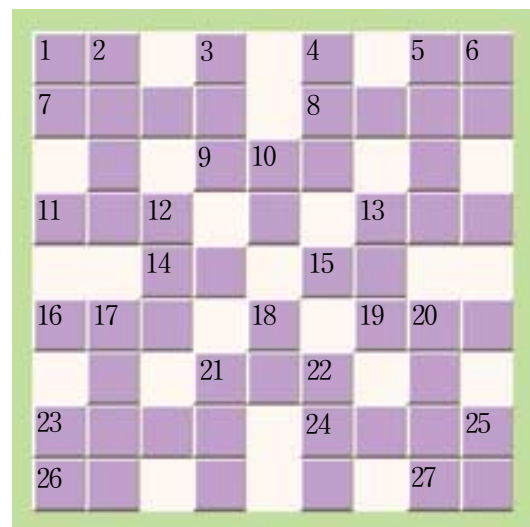
하지만 그보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수 천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법원과의 실랑이는 그에 대한 추징금 2,204억원을 돌려받고 받아지는 일이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은 대통령 자리를 광주를 희생으로 삼아 강제로 앉았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든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나

“업을 피할 만한 곳은 산도 아니요, 바닷 속도 아니며,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있지 않다.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듯이 선악의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가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선재는 믿는다. 피라가 잡힌 100억원은 이제 과보의 시작이다. 나라를 훔친 전직 대통령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선재도 세상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회) 연필

## 상식퍼즐

### 가로



1. 불 보살의 큰 자비 5. 기발하고 뛰어난 지혜 7. 여래의 본원력으로 주어지는 신심 8. 일정한 기간동안 최선 정진을 하는 것 9.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 3명과 3업을 원만히 갖추었다는 뜻 11. 교법대로 계행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 13. 큰 실수 14. 크고 높은 덕 15. 숨겨서 소중히 간직함 16. 현상계를 차별적으로 볼 19.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높은 대 21. 방생을 하는 연못 23. 한데에 무대를 마련한 극장 24. 불 보살은 모든 중생과 한 몸으로 여겨 대자비심을 일으킨다 26. 무엇을 하는데 달맞은 곳 27. 경전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석하는 것.

<445호 '교리퍼즐' 정답>



### 세로

1. 한 없이 넓고 큰 서원 2.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하는 것 3. 중국 선종의 3대조승한 스님이 선의 목적과 이치 등을 4글자 146글로 정리한 책 4. 부처님의 가체는 무슨 종족? 5. 이미 정해진 사실 6. 지각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지면이 일정기간동안 진동하는현상 10. 수행과 그에 따른 결과 12. 자성을 본다 13. 대장경을 보관하는 전각 17.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듯한 별세계 18. 과거 생 21. 아득히 넓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21. 방장이 가거하는 방 22. 지구가 태양의 돌레를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다는 학설 23. 곡식 등을 한데에 쌓아둠 25. 빛들.

## “부처님 등불” 수공예양초

기원 전기촛불 수공예양초 (색상: 흰색, 자주, 청색, 노랑, 빨강 외 다수)

귀의 삼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가 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늘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혀 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안정성과 그늘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이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미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 정인정신을 담아 손으로 정성껏 제작한 수공예양초입니다.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파랑) 소원성취(노랑) 신촌기원(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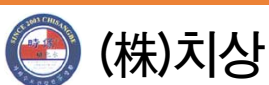
광고협찬: 불교용품점 문의 전화 및 서울 02)734-1383 이화불교사(조계사) 취급점 상담 대구 053)354-7880 만평불교사

## 휴대용 다구(茶具) 탄생!

스님, 불자님!!! 가벼운 신형, 성지순례, 대중공양때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나 O.K 심그러운 차양(茶香)과 건강을 선물하세요.



녹차, 중국차, 티백등 입맛따라 간편하게 사용되는 휴대용 차 도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1-2 그린빌 오피스텔 511 TEL: 서울본사 02)3487-0308(대) 부산지사 051)558-4634

취급점 모집

## 육법등 (六法燈)

의정등록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정영된 육법등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로써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등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소: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031)541-1417 / 팩스: 031)541-1419

휴관 및 대리점 모집